

202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X 공감직업환경의 학센터
노동안전보건 연구공모 보고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과 대응 전략

： 공적 보호의 한계와 에스닉 네트워크의 활용

2025. 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감직업환경의 학센터

책임연구원: 황지영 서강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jayhwang13@sogang.ac.kr

공동연구원: 최서영 서강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목 차

1. 들어가며	1
2. 국제 이주 노동과 이주자 네트워크	3
3. 연구 방법	5
4.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경험	10
5. 이주노동자 산재대처와 에스닉 네트워크	42
1) 긴급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	42
2) 에스닉 네트워크 조력의 지속 불가능성	43
3) 에스닉 네트워크 내 불평등과 조력에 대한 접근성 문제	47
4) 소결	51
6. 산재보험 접근 통로로서 에스닉 네트워크	52
1) 산재보험(조력자) 소개받기	52
2) 조력의 거점으로서 이주민 활동가	53
3) 법률 전문가의 홍보 창구로서 에스닉 네트워크	58
7. 결론 및 정책제언	67
1) 요약	67
2) 한계	69
3) 정책 제언	71
참고문헌	74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역할을 안전망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주노동자와 전문 산재 조력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산재 대처 과정에서 ‘산재 당사자’와 ‘조력자’는 고정된 집단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산재 경험을 계기로 획득한 지식과 정보가 이후 다른 동포의 산재 대처를 돋는 자원으로 전환되는 순환적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경험은 개인적 비극에 그치지 않고, 에스닉 네트워크 내부에서 공유·축적되며 상호부조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에스닉 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첫째, 에스닉 네트워크는 긴급 안전망으로 작동하였다. 산재대처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이주 노동자들은 에스닉 네트워크를 통해 임시 거처, 의료비 지원, 병원 통역과 간병, 수술 보호자 역할 등 다양한 형태의 조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력은 친척이나 고향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뿐 아니라,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을 매개로 동포 관계를 통해서 제공되었다. 다만 이러한 조력은 단기간의 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반면, 장기적인 요양이나 생계 유지까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으며, 접근 가능성 역시 체류 지위나 본국 내 지위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났다.

둘째, 에스닉 네트워크는 산재보험 접근의 통로로 기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동포를 통해 전문 산재 조력자를 소개받아 산재보험을 신청하였으며, 산재 대처 경험을 가진 당사자들 역시 이후 다른 동포에게 조력자 정

보를 전달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영리 산재 조력자는 신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나는 경로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접근 시점과 소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산재보험 접근은 당사자에게 ‘운’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초기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장기간 조력을 지속한 일부 전문 조력자는 이주민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거점’으로 자리 잡아, 비교적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한편 에스닉 네트워크는 영리 법률 전문가에게도 고객 확보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국적별 통역을 고용해 이주민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는 산재보험 신청 관련 조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면이 있으나, 동시에 약탈적 법률 전문가에 의한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시켰다. 이에 대응해, 제한적이지만 이주민 사회 내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동포 조력자를 중심으로 정보 검증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를 제도 접근의 실패나 단순한 피해 경험으로 환원하지 않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에스닉 네트워크가 공적 안전망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불확실성과 불평등, 위험을 함께 내포한 양면적 안전망임을 경험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산재 경험을 계기로 조력자로 전환되는 순환적 상호부조 구조를 밝힘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를 관계적·집합적 실천으로 재개념화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산재 대처가 가능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는 점, 산재 이후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삶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업무 관련 상병이 산재보험 신청 외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가 개인의 역량이나 우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국어 기반의 공식적 산재 조력 체계 구축과 미등록·불안정 체류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에스닉 네트워크의 상호부조적 특성은 조합이나 상호부조 기금과 같은 집합적 형태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니며, 향후 공적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안전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1. 들어가며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이다(정연·이나경, 2022). 위험한 일자리를 모두 이주노동자가 대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동환경 속에서 반복적인 부상과 건강 마모(weathering)를 경험하였다(Geronimus, 2023). 이주노동자의 노동 시장 지위는, 한국인 간의 노동시장 불평등을 설명해 온 기준 연구의 지위 변수(정이환, 2007; 이철승, 2017)를 적용하기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주변 적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건강 문제는 사고 같은 단일한 사건이 아닌 업무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했거나 공상 처리¹⁾된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이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산재로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건강 문제는 산재 신청이나 공상 처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업장 변경이나 귀국으로 이어졌으며, 산재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건강 문제의 경계는 당사자의 경험 속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ethnic network)가 어떻게 조력의 경로이자 안전망으로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는 이주노동자가 산재대처 과정에서 경험하는 취약성과 제도적 배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왔으나(노지현·강선경, 2016; 노지현, 2016), 이주노

1) 공상처리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산업재해보험으로 신고·보상하지 않고,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개인 질병·사고로 처리하여 치료비나 휴업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동자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관계를 통해 자원을 동원하고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조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글은 이주노동자가 처한 구조적 취약성을 단순히 제도적 한계로만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대신 이주노동자가 실천적 대응 방식을 활용해 삶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비공식적 지원망과 대응 전략이 갖는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산재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 내의 조력에 어떻게 접근하게 되는가? 둘째, 이러한 조력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며, 어떤 한계를 지니는가? 셋째, 이러한 접근과 제공의 방식은 에스닉 네트워크를 어떤 성격의 안전망으로 형성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산재 당사자와 조력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능동성을 포착하는 동시에, 이들이 만들어내는 안전망이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함께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7명(이 중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 5명)과 전문 조력자 11명, 총 1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주자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준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인터뷰 수행 및 분석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 산재 노동자 5인의 산재 대응 경험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긴급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과 특성을 검토하고, 제6장에서는 산재보험 접근의 통로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과 특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2. 국제 이주 노동과 이주자 네트워크

■ 이주자 네트워크와 이주의 지속

이 글에서 사용하는 에스닉 네트워크는 이주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이주자 네트워크(migrant network)를 의미한다. 이주자 네트워크는 혈연, 우정, 그리고 출신 국가나 지역에 기반한 유대를 통해 이주자, 귀국한 이주자, 그리고 비이주자를 연결하는 대인관계의 집합으로 정의된다(Massey et al., 1993).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주자 네트워크의 존재는 국제 이주노동자의 이동 비용과 위험을 낮춤으로써 이주를 지속시키며, 이주의 축적은 다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누적적 인과(cumulative causation)를 만들어낸다. 즉, 초기 이주자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정착을 시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워크는 신규 이주자에게 정착과 위기 대처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 사회적 자본으로서 이주자 네트워크

이주자 네트워크가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위기 대처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은,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한 형태임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 속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사회적 관계 자체와 그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자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Portes, 1998). 이주자 네트워크 안에서 조력을 주고받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조력의 수혜자가 이후 다른 구성원의 조력자로 전환되기도 한다.

사회적 자본 연구는 즉각적인 보상 없이도 조력이 제공되는 이유, 즉 사회적 자본의 원천에 주목해 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력은 상호부조 규범의 내면화,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통의 불리한 처지에서 비롯되는 연대 의식에 의해 가능해진다(Portes, 1998). 또한 금전적 지원이

나 정보 제공과 같은 조력은 네트워크 내부의 신뢰와 규범, 그리고 평판과 제재를 통해 유지되는 통제 메커니즘에 의해 가능해진다(Coleman, 1988).

■ 유대의 형태와 조력의 조직화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이론은 조력이 어떤 유대를 통해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제시해 왔다. Granovetter(1973)는 약한 유대가 새로운 정보와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후 연구들은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가 각기 다른 조건에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었다. Lin et al.(1981)은 약한 유대가 노동시장 상향 이동을 매개하기 위해서는 조력자와 고용주 간의 강한 유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대의 효과가 맥락에 따라 달라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가 다루는 산재대처 맥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조력이 개인적 친분을 넘어 어떻게 조직화되고 반복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특히 이주자 네트워크 안에서 특정 개인이 반복적인 조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은 네트워크 이론에서 논의된 중개(brokerage)와 연결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Burt, 2004). 중개는 네트워크 상의 공백을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한 행위자들에 의해 가능하며, 이들은 네트워크 연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Coleman, 1988; 1990; 황지영, 한나현, 차필립, 조혜란, 이철승, 2025). 그러나 중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의존성 또는 권력 비대칭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여 브로커리지의 편취적 관계 역시 가능하게 할 수 있다(Gould and Fernande, 1989; Stovel and Shaw 2012; Cook, Levi and Hardin, 2009).

■ 연구의 분석틀

한편 사회적 자본을 집단 수준의 특성으로 정의하는 접근은 사회적 자본을

시민적 참여나 결사 활동의 수준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 주로 활용되어 왔다(Putnam, 2016[1993]). 그러나 본 연구는 민족 집단 간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비교하기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조력이 어떻게 제공되고 순환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는 본 연구가 국적별 비교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반영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라는 공통의 제도적 조건 속에서 이주자 네트워크가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탐구하기 위한 분석 전략이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와 전문 산재 조력자 18명을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했다. 자료 수집은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산재 및 이주 관련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고문(그림1)을 게시하고 연구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을 통해 참여자가 원활히 모집되지 않아,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추가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진행하였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연구진이 ‘H동 공동체’ 상점(노점)과 필리핀 식당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와 종업원, 이용자에게 산재를 경험하거나 이런 사람을 조력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으며 인터뷰 대상자를 찾고 참여 의사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를 희망하는 이주노동자 3인을 섭외할 수 있었다. 이 중 한 명은 산재 당사자로 인터뷰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또 다른 산재 당사자인 직장 동료를 소개 시켜주었다.

한편 H동에서 만나 이주노동자 중 1명은 산재를 겪는 친구에게 조언한 경험이 있었다. 또 다른 1명은 직장에서 한국인 상사의 산재를 목격한 자로 초

기에 설정한 연구 대상자는 아니었다. 다만 그는 E9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필리핀 사람들이 산재 대처하는 방식과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직간접적 의견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연구참여자로 포함하였다. 또 다른 산재 당사자인 연구참여자 3인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전문 조력자 2인에게 소개받고, 본인이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혀 섭외하게 되었다.

산재 전문조력자의 경우, 연구진이 아주 단체나 이주민 인권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는 활동가와 법조인(노무사, 변호사, 행정사 등)에게 직접 연락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기에 섭외한 전문 조력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연구진에게 추가로 연락해 볼 전문 조력자를 소개해 주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8명이다(자세한 특성은 표1 참고). 이주노동자는 E9 비자가 다수였으나, 이 중 2명은 임시비자 G1으로 체류 중이고, 다른 1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입국해 F1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는 경기 지역 및 충청도, 경상도 등 다양한 지역의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해 발생 당시 재직 중이었다.

산재 조력자의 소속 기관은 대부분 비영리 기관으로 종교단체 산하 기관을 일부 포함하며, 이 중 1인은 결혼 이주 여성으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산재 조력자 2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이다. 다만 이들은 각각 비영리 이주 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거나 본업과 이주민 인권 활동에 병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산재 전문 조력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포함해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조력 경험의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2025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뷰를 시행했다. 장소는 연구참

여자가 희망하는 지역 내의 스터디룸을 연구진이 예약하는 방식으로 준비되었고, 일부 참여자는 인터뷰 내용을 주위 사람이 들을 수 있음에도 특정한 장소에서 진행되길 희망해 참여자의 의사에 따랐다. 인터뷰 시간은 최소 90분에서 120분이었다.

인터뷰는 연구진이 사전에 작성한 질문지를 토대로 시행됐으며, 참여자의 특성(산재 당사자와 조력자, 조력의 성격 등)에 따라 질문 내용을 인터뷰에 맞춰 조금씩 수정 보완하였다. 질문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에스닉 네트워크와의 관계, 산재 대처, 산재 이후 한국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하위 질문을 작성했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는 서강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SGUIRB-A-2505-29).

인터뷰는 전사해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연구참여자 중 산재 조력자는 한국인이 대부분이고 이주민이라도 한국 체류 기간이 길고 전문 통역가로 활동할 정도로 한국어에 능숙해 전사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이주노동자와의 인터뷰는 영어와 한국어를 혼합해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연구진과 연구참여자 모두 언어 구사가 제한적인 가운데 떠올린 단어를 정확히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바와 다른 단어와 문장을 더듬거리며 여러 차례 말하기도 하였다. 이 인터뷰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동떨어진 의미의 문장은 삭제하였다. 이주 노동자의 발화는 최대한 원문 그대로 전사하고,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만 추가 정보를 괄호 치고 덧붙이거나 윤문하였다.

본 연구는 산재 당사자인 이주노동자 5인의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각각의 자세히 분석하며, 사례 간의 산재대처 과정과 결과(산재 신청, 공상 등) 비교를 수행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과정의 특성을 도출했다. 또한 산재대

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재 당사자 5인의 인터뷰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참여자들이 산재 대처를 위한 조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직간접적으로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를 경험했으며, 그 안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매개해 왔는지를 살폈다. 또한 연구진은 이 분석 결과를 전문 조력자 11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였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재 대처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분석에 참고가 되는 여러 사례를 들려주었고, 그 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림 1]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문

연구 참여자 모집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과 대응 전략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경험에 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인터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대상자 산업 재해를 경험한 이주 노동자

- 현재 요양 중이거나 과거에 산재를 경험한 분
- 한국어 또는 영어 가능자
- 비자 상태는 상관 없음

이주자의 산업 재해 대응에 도움을 주신 분

- 한국어 또는 영어가 가능한 이주민
- 한국인 및 한국인 전문자격사: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등

방식 찾아가는 인터뷰 진행

- 1:1 인터뷰
- 60~90분 소요
- 5만원 사례비

참여 및 문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황지영
010 9489 0321
jayhwang13@sogang.ac.kr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가. 이주노동자

번호	식별 기호	성별	소속	상병 특성	출신 국가	현재 비자	입국 비자
1	호세	남성	무급가족	-	필리핀	F1	F1
2	후안	남성	제조업	-	필리핀	E9	E9
3	카를로스	남성	제조업	손가락/절단	필리핀	E9	E9
4	마르코	남성	제조업	다리/미끄러짐	필리핀	E9	E9
5	라메시	남성	제조업	폐/질병	방글라데시	E9	E9
6	모하마드	남성	제조업	손가락/끼임	방글라데시	E9	E9
7	민	남성	건설업	눈/실명	베트남	G1	C3

*주: 이주노동자는 식별 기호로 출신 국가의 대표적인 이름을 활용하였음.

나. 산재 전문조력자

번호	식별기호	성별	소속	기타
1	A	남성	노조	
2	B	여성	노조	
3	C	남성	NGO	
4	D	남성	NGO	
5	E	남성	NGO	
6	F	여성	NGO	
7	G	여성	NGO	
8	H	남성	NGO	
9	I	여성	NGO	결혼이주
10	J	남성	법조	
11	K	남성	법조	

4.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경험

2025년 6월, 연구진은 필리핀 ‘H공동체’가 위치한 H동성당과 H동 로터리 일대의 상점(노점)에 방문해 사업주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산재를 경험했거나 산재를 당한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상점의 사업주는 대부분 결혼 이주여성으로 산재를 경험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거나 한때 알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인터뷰에 참여해 조력 경험에 대해 들려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이들은 대부분 가까이에서 돋지 않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주중에는 한국에 사는 손자들을 돌보고 주말에는 동생이 운영하는 상점 일을 돋는다고 소개한 호세는 자신이 산재 노동자를 도운 적이 있다면서 인터뷰 참여를 의사를 밝혔다. 그는 F1 비자로 체류 중인 이주민으로, 한국에서 임금노동을 한 경험이 없어 이주노동자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주말마다 H동 로터리의 상점에서 일을 돋고 있고 H동 성당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이주노동자인 친구가 다수 있었다.

호세는 산재를 당한 친구에게 어떤 조력을 했는지 묻는 연구진에게 “성당으로 가라”라고 조언했다고 답했다. 이외 산재 노동자와 긴밀하게 소통한 경험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호세는 필리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성당으로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H공동체’ 내에서 성당의 안전망 기능은 한국 체류 기간이 길지 않고 노동시장 경험이 없는 이주민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음을 체감하게 했다.

연구진은 이날 필리핀 식당에도 방문했는데, 여기서 인터뷰에 참여할 이주 노동자 2인(이 중 1인은 산재 노동자)을 만난다. 먼저 후안은 2023년 E9 비자로 들어와, 현재 전라도 지역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식당

에 나와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는 산재 노동자를 만난 경험에 있다고 말하며 인터뷰 참여를 희망해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후안과의 인터뷰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진은 그가 산재를 경험한 이주노동자와 만나본 경험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의 직장 ‘반장님’이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를 경험한 것을 본 적 있고 그는 한동안 치료를 하고 직장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비록 연구진이 의도한 연구대상은 아니지만, 연구 초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대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후안에게 스스로 산재를 겪거나 그런 친구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며 인터뷰를 지속하였다. 후안은 지역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E9 노동자임에도 산재보험에 대해 처음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필리핀 이주민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필리핀 이주민 사회에선 돈을 기부하거나 빌려주는 방식으로 금전적 도움을 주며 이러한 도움이 흔하였다.

(최: 만약 산재를 당했는데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필리핀 커뮤니티에 가겠죠. 거기서 도와줄 거예요(...). 친구가 많고 좋은 사람이면 도와줘요. 근데 안 좋으면 조금만 도와줘요. 친구가 많고 좋은 사람이면 많이 도와줘요. 작은 돈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 연구참여자 후안

연구진은 ‘H공동체’에서 만난 두 명의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진은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실체와 공동체 내에 상호부조의 문화가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후 인터뷰에선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장에선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이주노동자 5인의 산재대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본다. 여기선 연구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서술하거나보다, 각각의 이주노동자가 산재 대처와 산재 이전과 이후의 삶, 에스닉 네트워크로부터 획득되는 조력에 대해 답변한 것을 최대한 자세히 옮겼다.

이러한 기술적(descriptive) 내용을 긴 지면을 할애해 제시한 것은 연구참여자의 경험 중 연구진이 산재 대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선별한 내용만을 살펴볼 때보다, 이처럼 총체적(holistic)으로 연구참여자의 삶을 파악할 때 개인 수준에서 산재를 어떻게 대처하고, 이후 삶에 영향을 받는지, 산재 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자가 되어가는 양상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좋기 때문이다. 4장 내용을 토대로, 다음 5장과 6장에선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에서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과 특성을 ‘긴급 안전망’과 ‘산재 보험의 접근 통로’ 두 측면에서 각각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 카를로스

카를로스는 2014년 E9 비자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전 직장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를 경험하였다. 카를로스의 산재 대처는 성공적인 편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승인받아 3주간 요양했으며, 사업주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보상금을 받았다.

산재 초기 대처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관리자의 개인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형태였다. 카를로스는 병원의 진료 거부로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이동해, 첫 진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하였다. 회사 차원에서 카를로스의 초기 대처의 비용은 지불 됐지만, 당시 사업주는 카를로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충분한 지원할 의향이 없었고, 최대한 빨리 업무에 복귀하기만을 바랐다.

사업주의 압박 속에서 카를로스는 업무 복귀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는 가까운 친척(삼촌)의 소개로 이주민 센터를 알게 되고, 담당 의사 역시 사업주의 태도에 문제를 느껴 카를로스의 산재 대처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주민 센터와 의료진의 조력으로 카를로스는 산재보험을 신청해 승인받고(요양 기간 3주), 추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주로부터 보상금 600만원(이 중 변호사비 100만원)을 받았다.

이주민 센터는 제 삼촌 때문에 알게 됐어요. 삼촌이 저에게 이주민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삼촌이 없었다면, 저는 바로 일했을 거예요. 다시 일하러 갔을 거고, 의사가 저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사업주에게)

“알겠어요. 일하러 갈게요”라고 했을 거예요.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이주민 센터가 도와줬어요. 이주민 센터에 (산재)보험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주민 센터가 병원과 이야기했어요. 그들 (센터와 병원)이 이야기하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모든 혜택을 알려줬어요. 치료 후에 피해 보상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제 고용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해서요. 우리는 이겼어요. 그래서 이 사고로 6백만 원을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카를로스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주민 센터와 그 센터를 알고 있던 삼촌이다. 삼촌은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주민 센터를 소개받은 것을 에스닉 네트워크의 안전망 기능 덕분이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산재 대처에 국한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로서 카를로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에스닉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조력을 제공하고(동시에 제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우선 카를로스는 산재대처 과정에 큰 도움을 준 삼촌에게 반대로 보험가입 관련해 정보를 전달해 준 적이 있었다. 카를로스는 우연히 미등록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존재와 가입 방법을 듣고 삼촌에게 전달했다. 그의 삼촌은 미등록 지위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어 혹시 아프거나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황: 모든 미등록 이주민들이 이 정보(보험)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대부분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황: 그럼 그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리

고 우리는 약간 대화를 나눴죠. 그러다 그가 그 정보(미등록 보험)를 저에게 공유해 줬어요.

저도 미등록으로 일하는 삼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보험을 들고 싶으면 이 장소에 가서 이 사람과 이야기해 보라고요. 보험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때론 카를로스는 자신이 입국 초기에 다른 동포 친구에게 받은 도움을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막 들어온 동포들에게 돌려줬다. 예를 들어, 카를로스는 몇 달 전 한국에 새로 입국한 필리핀 친구들과 만나 은행 업무 처리하는 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 등을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생활의 선배인 친구가 자신의 집(고시원)에 방문해 하루 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시내를 “여행”하는 법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카를로스는 때로는 전화로 한국어가 서툰 친구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기고,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 글에 답변하기도 했다²⁾.

저는 한국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줘요. 시간을 내세요. 작년 8월에 새로운 동료 3명이 있었는데, 제가 은행 업무나, 어떻게 여행하고, 버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은 것을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요.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2) 연구참여자 카를로스는 “이전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가서 질문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당신과 소통하고, 도와주고, 법률 문제나 의료 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유용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편리해 졌음을 보여준다.

한번은 (통화 중)콜밴 기사에게 태워줄지 묻는 것을 들었는데, 친구는 기사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화로 기사에게) 그냥 “네”라고 (대신)답했고 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그들은 그저 쳐다봤죠, 뭐라고 했냐고요.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황: 페이스북에 글을 써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문제가 있다면 반응만 해요. 엄지 척 같은 반응은 아니고요. 이슈가 저에게 맞고, 그 이슈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댓글도 달아요. 정보를 공유해요. 그건 저에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몇 분밖에 안 걸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카를로스는 이처럼 상호부조 성격이 강한 에스닉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성원이기 때문에, 산재대처 과정에서 배운 지식은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사람들을 도울 자원이 됐다. 그는 업무 도중 허리를 다쳤음에도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되어 귀국했던 친구를 회상하며, 당시에는 주위 사람 중 누구도 이주민 센터를 몰랐고 할 수 있는 게 없던 점을 아쉬워했다.

허리를 다친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필리핀 집으로 돌아갔어요(...). X-ray를 찍었는데, 의사가 다시 일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계속 일하면 더 나빠질 거라고요.

친구는 회사에 허리가 부러졌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고는 일하는 중에 일어났어요. (황: 보상받은 것이 있나요?) 아니요, 보상받은 것은 없어요.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 3~4개월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잘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주민 센터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하지만 이제 카를로스는 산재대처 과정에서 단계별로 요구되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도 알고 있었다. 그는 평소 주위에 사업주가 산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신이 조력 단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조언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말했어요. 회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저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다고. 아주민 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산재대처관련)지식은 논의되어야 해요.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 절차가 무엇인지요. 당신의 혜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권리이니까요.

-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카를로스는 평소 일상적인 문제부터 산재 대처까지 다양한 이유로 자신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도 바쁘지만 돋고 싶어 “시간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카를로스는 자신이 다른 친구들을 돋는데 시간을 쓰는 이유에 대해 “같은 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서로 돋는거예요”라고 말했다.

저는 이미 그 일을 겪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저에게 지식이 되는 경험으로 여겨요. 나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경험에 대해 감사해요. 그 경험이 저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줬으니까요. 그 경험이 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돋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세상에서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돋고 싶다면, 노력하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누군가 제안이나 지식을 원하면, 밤에도, 퇴근 후에도 전화해요.

-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한편 카를로스는 산재대처 과정을 자세히 알고 친구들에게 조언할 수 있었지만, 그가 생각하는 산재의 범위는 업무상 사고로 매우 좁았다. 카를로스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한국에서 좀 더 일하고 싶은데 건강 악화로 비자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고된 일을 하다 보니 아픈 곳이 많다면 항상 ‘한의원’에 다닌다고 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1개 월 동안 병가를 받아 필리핀에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사업주가 현장에서 주변 동료만큼 일하지 못하는 그를 보고 “필리핀으로 가”라고 말했고 해고될 뻔했지만 복귀 후에 강한 진통제를 먹으며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못함을 인식하는 한편, 가족 부양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의 건강 상태가 한국에서 자신이 거쳐온 직업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사업주를 원망하기보다, 추가로 일할 기회는 준다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머물고 싶지만, 문제는 제 신체 건강이에요. 저는 정말 머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세 명의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제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아마 비자가 끝

날 것 같아요. 사실,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사업주가) 제 비자를 연장해 줄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서 있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빨리)걸을 수가 없어요. 몇 초 서 있다가 아주 천천히 걸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오셨는데, 제 상태를 봤어요. 그들은 제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서 있는지 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나가래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필리핀에 돌아가서 쉬었어요. 이 일 때문에 정말 슬펐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똑같을 거니까요. 저는 쉬어야 해요. 하지만 가족도 제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강한 약을 먹고 회사에 제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해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비자 연장을 해줄지 확신할 수 없어요.

- 연구참여자 카를로스

(2) 마르코

마르코는 2015년 E9 비자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매형의 추천으로 한국에 왔는데, 지금은 자신의 권유와 지원으로 친척이 한국에 일하러 와 있다고 했다. 마르코는 현재 직장에서 일하던 중 무릎 부상을 당했다. 그는 산재보험을 신청해 승인받는 공식적인 대처를 하진 않았고 산재보험 자체도 알고 있지 못했다. 다만 사업주와 원만히 공상 처리한 사례로,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한 달간의 요양 기간(2주 입원, 2주 통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 마르코는 사업주에게 호의적이었다.

산재 초기 대처는 현장 관리자의 조력으로 이루어졌고, 마르코가 요양 과정에서 특히 힘든 점으로 꼽은 것은 입원 당시의 외로움이었다. 그는 코로나 시기에 입원을 해 동료들이 문병을 오지 못했고, 그를 병원에 데려다준 현장 관리자(부장)만 2차례 방문했다. 마르코는 가족도, 친구도 만나지 못한 채 홀로 요양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정말 힘든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 번은 를러 작업 중이었는데,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사진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1미터 정도 깊었는데, 청소하다가 미끄러졌고 무릎을 다쳤어요. 너무 아파서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수술을 받았고요. 병원에 2주 입원했고, 그 후 2주는 집에서 쉬었어요. 그 후 다시 일하러 갔죠(...).

병원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병문안을 못 왔거든요. 진짜 외롭고 힘들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올 수가 없었죠.

- 연구참여자 마르코

회사에서 다 (치료비)지원해줬어요. 월급도 그대로 줬고요(...). 사

고가 나고 나서 우리 회사 부장님이 바로 병원으로 데려다줬어요.
병문안도 두 번이나 오셨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사장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마르코는 산재 대처에 필요한 조력을 회사 관계자(사업주와 관리자)로부터 얻기 때문에, 에스닉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조력을 얻을 필요는 없었다. 한편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 대처를 하기 위해선, “좋은 사장님”³⁾과 일하는 행운이 따라줘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재 대처를 위해 에스닉 네트워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마르코의 산재대처 경험은 그 과정과 과정에서 배운 지식 모두 에스닉 네트워크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마르코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이 미미하였던 것과 별개로, 그는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두 가지 조력을 수행하고 있었다. 첫째, 마르코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모금에 자주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모금에 참여하는 것을 ‘카바바얀(Kababayhan)’이라는 필리핀 단어로 표현했다. 이 단어는 혈연, 친구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를 돋는 공동체적 관계를 뜻한다. 랜디는 ‘카바바얀’이 필리핀 사람들이 “믿는 방식(신앙)”이며, 필리핀 사람끼리는 친구의 친구까지 모두 자신의 친구가 되는 게 “필리핀 사람들 방식”이라고 말하였다.

(황: 그럼 누군가 수술이나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가끔 친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게시글을 올리면, 계좌 번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가 송금해요.

3) 마르코가 말하는 ‘좋은 사장님’은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않는 상사에 가까워 보인다. 인터뷰 중 그는 자신의 작업환경이 청결하지 못하고 쟁가루와 페인트 가루가 날린다고 말했다.

(황: 페이스북 같은 데에요?) 네, 페이스북에 올려요.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면 그걸 보고 송금해요. 카바바얀(kababayán)이라고 부르죠. 같은 필리핀 사람이면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도와줘요. 그게 우리 커뮤니티 방식이에요(...).

가까운 친구에게는 더 자주 도와주지만, 우리가 믿는 건,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둘째로, 필리핀 사람 간의 대화나 페이스북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즉시 대처했다. 그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잘못된 정보이면 그 부분을 바로 지적하고,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보 중 거짓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신고하고 있었다. 마르코는 평소 뉴스를 즐겨보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와 사기/거짓 정보를 잘 파악한다고 자랑하였다. 마르코가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대하는 방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거짓 정보를 혼자만 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접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대처를 통해 거르도록 돕는 점이다.

(황: (페이스북 정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요즘은 AI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뉴스도 보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요. 가짜 정보 같으면 바로 신고해요. 저는 뉴스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짜 정보는 보면 알아차릴 수 있어요. 보고 바로 신고해요.

(황: 친구 중에 한국 생활을 오래 해서 정보에 밝은 사람이 있나요?)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 앞에서 얘기하면, 저는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으면 "그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바로 말해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한편 마르코는 다양한 에스닉 기반의 유대에 속해 있었다. 그는 ‘H공동체’를 종종 방문하고 지역 성당의 필리핀 예배에 매주 나가며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즐겨 보았다. 이뿐만 아니라 소규모 채팅방(그의 경우 10명 내외로 구성)에 속해 있었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이야기 등 근황을 묻고 “가족”처럼 지내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소규모 채팅방의 참여자는 본국에서부터 친구였던 사람들, 그 친구들의 (전)직장 동료들 등 다양한 계기로 친해진 사람들이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보통 다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메신저 채팅이요. 그래서 다들 어디에 갈지 공유해요. “H동으로 가라”, “성당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은 성당에 가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최: H동 마켓이나 채팅방을 통해서는 어떤 정보를 주로 얻으세요?) 보통은 일자리나 장소에 대한 이야기요. “거기 일 어때?” 이런 식으로요.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단체방이에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얘기해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H동은 멀어서 잘 안 가요. 대신 C에도 교회 커뮤니티가 있고, 역 근처에 친구들도 많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그 성당에 가요.(황: 그럼 성당에서도 친구들을 만나시겠네요?) 네, 가끔은 집에서 모이기도 해요. “우리 집에 놀러 와”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마르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에스닉을 공유하는 인간 관계를 넓혀가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개인 수준에서 보면 직장 동료에서 출발해 동료의 고향 친구나 전 직장 동료 등으로 확대되었다.

(황: 서로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친구가 있죠. 그렇게 친구의 친구로 알게 돼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기숙사) 아파트에 4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필리핀 사람이 12명 정도 되고요. 가끔 외식을 하면서 친해지고, 다른 공장의 필리핀 친구들도 초대하고, 그렇게 네트워크가 확장돼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이처럼 “동포” 친구들이 많은 마르코는, 연구진이 만약 사업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조력 단체(그의 표현으로는 이주민 센터)를 모른다면 산재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친구 특히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마르코의 답변은 한국어를 비교적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주위 친구들에게 병원 동행을 요청받는 일이 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르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무료로(혹은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며 A지역에 산다면 ○○병원, B지역이라면 □□병원에 가야한다고 답했다.

(황: 만약 이주민센터도 모르고, 사장님도 안 좋은 사람이면... 그때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럴 땐 친구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한국어를 전혀 못하면 진짜 어려워요. 작은 병원에는 통역도 없고요. 큰 병원엔 통역이 있는데, 작은 데는 힘들죠.

- 연구참여자 마르코

제가 아는 안산에 있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병원은 비자 없는 이주민도 도와줘요. 제 친구도 거기 다녔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시고요. 거긴 무료예요. (황: 그 병원은 다들 아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친구들만 아는 건가요?) 이주민센터에서 알려주긴 해요. 거기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이주민 사무실 같은 곳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민센터를)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정리하면, 마르코는 자신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조력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조력이 필요한 경우 통역을 제공한 친구를 구하고 의료 기관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할 친구를 소개하거나 병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력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었다.

(3) 라메시

라메시는 2011년 E9 비자로 처음 한국에 왔다(현재는 임시 비자 G1). 그는 직전 직장으로 이직한 지 6개월 만에 급성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라메시는 입사 전에 받은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던 점과, 자신의 노동환경이 쇳가루 등이 날리는 열악한 환경이었던 점을 근거로 폐 질환을 산재로 본다. 라메시의 산재 대처는 사업주의 방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산재보험 신청은 대사관에서 대행해 주었으나 불승인되었고, 현재 전문조력자인 연구참여자D의 조력을 받아 산재 불승인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산재 초기 대처는 자신의 급격한 건강 악화를 인지한 라메시가 사업주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시작된다. 경영진이 동네 병원에 데려다 주자, 그는 큰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며 건강이 안 좋아 일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영진은 라메시를 큰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장시간 근무에 계속 투입했다.

10월달에 너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숨쉬기 많이 안 좋아졌어요.
여기서(기숙사방에서) 문까지도 나 못 걸어요. 그래도 일 계속 시켜요. 병원 가는 시간도 안 줘요.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요. 그다음에 병원 가고 싶으면 욕해요 모욕해요. (아픈 거)괜찮아
괜찮아. 이렇게만 하고 병원 못 가게 만들어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이 상황이 지속되자 라메시는 근무시간에 택시를 불러 혼자 병원에 가는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 처음에는 인근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받아왔고, 그 약을 먹고도 건강이 개선되지 않자 다시 한번 홀로 시내의 대

형 병원을 방문한다. 라메시는 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됐는데, 담당 의사는 그에게 폐 질환을 진단하고 심각한 상황이라 더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라메시는 담당 의사에게 큰 병원 예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병원에서 서울 소재의 대형 병원을 예약해 주었다. 그가 대형 병원에 방문하자, 담당 의사는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아 줬다고 한다.

라메시는 이즈음 회사 기숙사가 아닌 마석의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겨 6개월 정도 생활하게 된다. 그 이유는,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일을 못 하는데 회사 기숙사에 살면 일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고, 기숙사 환경 역시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석의 친구는 라메시의 산재 초기 대처 과정에서 중요한 조력을 제공한 사람으로, 그는 임시 거처를 제공한 것뿐 아니라 당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라메시를 위해 수술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주고, 그가 조금씩 갚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다만 그는 일정상 수술 보호자가 되어 줄 수는 없었다⁴⁾.

한번 나 혼자서 밥 먹고 점심 때 나 마음대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일하다 일하러 안 왔어요. 그다음에 안산에 하나 조그만 거 클리닉 같은 병원에 갔다가 그 치료 받았어요. 거기서 일주일 약 약 줬어요. 그 약 먹고, 이거 안 나아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병원에 안 보내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다시 시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한테 이거(증상) 다 얘기해 준 다음에 시티 찍었어요. 시티 찍고 그 선생님 아 바로 이거 큰 병원에 가야 돼요.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몰라서 내가 말했어요. 여기서 내가 좀 큰 병원에 예약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서울 □□병원으로 예약해 줬어요.

수술 받았어요. 바로 수술 했어요. 많이 안 좋아서. 그 수술 하고

4) 다른 연구참여자 마르코 역시 간병은 기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휴일이 적고 근무시간이 길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거기 마석에 있는 어떤 친구 방에 6개월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 다니는 공장. 거기 일 못 해요. 그 다음에 기숙사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방에서 살았어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이에 병원은 대사관과 회사 관계자에게 수술 보호자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취한다. 하지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수술 보호자는 라메시가 직접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구하게 된다. 그의 수술 보호자는 과거 수술 보호자를 구하지 못해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다.

한편 대사관은 라메시의 수술 종료 후에 병원에 방문했고, 그에게 산재보험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산재보험 신청은 대사관이 라메시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제공한 유일한 조력이었다. 산재보험을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회사 경영진은 라메시에게 신청을 취소하라는 협박을 하기 위해 연락한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많아 점검 시 상당한 벌금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라메시가 산재 신청을 취소하길 거부하자, 회사 관계자들은 그를 해고한다.

산재 신청했는데 그거 공장에 1주 안에 공장에 들어갔잖아요. 처리가. 전화 나왔잖아요. 그 전화 나온 다음에 이사님이 나에게 전화했어요. 나 어디냐. 빨리 와. 공장에. 너 왜 산재 신청했어? 산재 신청 취소해줘(...). 그다음에 내가 택시 타서 그 안성에 갔어요. 갔다가 이거 이거 2시부터 5시 반까지 계속 이사님 많이 많이 협박했어요. 협박하고 그다음에 욕하고 큰소리 많이 하고 이거 취소해 줘(라고). 여기 사인해. 그거 이거 많이 했어. 근데 대사관에서 말했어요. 절대 사인 하지 마세요. 취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내가 취소 안 했어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그러던 중 라메시는 마석의 친구 집에서 교회 빙방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그는 건강 상태가 나쁠 뿐 아니라 E9 비자 만료로 산재보험 신청자에게 임시로 발급되는 G1 비자로 체류 중이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비자 소지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라메시는 다행히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친구로부터 연구참여자D를 소개받는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이전과 비교해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며 산재 대처를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생계비 역시 일부 지원 받게 된다.

생활비가 많이 많이 힘들어서 가끔 아르바이트 나가는데 그 아르바이트 갔다가 일(제대로) 못 해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한 친구, 우리 방글라데시 친구가 말했어요. 왜 일 못 해요? 내가 그 다음에 설명해 줬어요. 그 친구가 연구참여자D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연구참여자D 알려줬어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라메시의 산재대처 과정의 특징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조력이 단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라메시와 조력자의 관계는 친구, 페이스북 커뮤니티로 연결된 사이, 직장(아르바이트) 동료까지 다양하였다. 그는 사업주의 방해로 산재 대처를 위한 자원을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도움으로 초기 대처(수술, 요양 등)부터 산재 신청 이후의 대처(행정소송과 생계)까지 대응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라메시의 산재대처 과정이 에스닉 네트워크가 안전망으로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모금을 진행했지만 50만원 정도를 모으는 데 그쳤다. 라메시는 성공적이지 못한 자신의 모금이 에스닉 네트워크 내의 자원 부족보단 종교 문제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은 힌두 사람이기 때문에 기부를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에스닉 네트워크 내의 조력에 접근하는 데 있어 본국에서의 소수자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파. 돈 없어요. 그거는 커뮤니티에 올리고 올려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후원해요. 그렇게 도네이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 우리 커뮤니티에서 많아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원래 우리 커뮤니티에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수술비)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거 도움 (많이)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기 종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우리가 우리 커뮤니티 대부분 무슬림. 근데 내가 힌두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 (못) 받았어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50만 원만 나왔는데. 근데 거기 이게 어떤 사람 아프면 24시간 안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내가 그때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최: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거기 3만 명까지, 2만 명, 3만 명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도와주면 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나라 사람 누구 아프면 도와줘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한편 라메시는 산재 당사자인 동시에 조력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었다. 그

는 한국어 능력이 출중한 편으로 병원에 통역으로 자주 동행하였고, 산재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상담해 주고 연구 참여자D와 연결해 줬다.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자신이 연구 참여자D를 만난 것처럼, 그 역시 다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조력자를 만날 수 있게 돕고 있었다.

라메시는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 부상을 당한 경험도 있었다. 경영진이 사고 직후 병원에 데려다주며 산재를 신청하지 말라고 하자, 당시 비자 연장을 앞두고 있던 그는 치료비와 월급이 제대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며 공장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임원이 폭언하며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요해 치료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다.

(황: 공장에서 다쳤을 때도 산재를 알고 있었어요 절차를?) 저 몰랐어요. 거기 대사관에서 그 병원에 거기 수술한 다음에 병원에 대사관에서 거기 구경하러 왔잖아요. 그 대사관 사람들이 아 이거 산재 신청해야 돼요. 우리가 산재 신청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 이거(폐) 다치기 전에 이거 손가락 많이 많이 다쳤어요. 이 때나 산재 신청 안 했어요. 그때 치료비도 잘 안 줬어요. 치료비 안 줬어요. 거기 월급만 줬어요. 그 공장에서 근데 맨날 일해 일해 일해 이렇게 했어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4) 모하마드

모하마드는 2022년 E9 비자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현 직장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 부상(끼임)으로 인한 산재를 경험했다. 모하마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승인받아, 현재 기숙사에서 통원 치료하며 요양 중이다.

산재 초기 대처는 사고 발생 직후 사업주가 인근 병원(동네 병원)에 데려가 진료받게 한 것이었다. 사업주는 진료를 마친 후 그를 바로 다시 업무에 투입한다. 하지만 모하마드는 통증이 계속되자 혼자 “큰 병원”에 방문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동네 병원보다 조금 더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자 더 큰 병원에 찾아갔다.

이거 3월 달에 처음 다쳤어요. 근데 공장에서 거기 근처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거 사장님 딸이 얘기해 주는 대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말했어요. 괜찮아. 그 다음에 바로 (병원)갔다가 일 시켰어요. 근데 아파서 일 못해서 조금 더 큰 병원에 서울에 있는 데 조금 더 큰 병원에 갔어요. 혼자서 그 병원에 막 갔어요. 아파서 일 못 해요. 그런데 계속 압박했어요. 일 해야 돼요, 일 해야 돼요.

- 연구참여자 모하마드

혼자 병원을 다니는 한편 사업주에게 업무 강요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던 중, 모하마드는 모스크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친구로부터 연구참여자 라메시를 소개받고, 그를 통해 전문조력자인 연구참여자D를 만나 산재보험을 신청한다. 모하마드는 라메시를 만나기 전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산재 치료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모스크에 주말마다 와요. 거기서 한 친구 만나서 그 친구 연구참여자 라메시를 아는 친구. 그 친구가 말했어요. 여기 라메시한테 가세요. 거기 한국 사람(조력자)이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라메시가 조력자 연구참여자D 소개해 줬어요.

- 연구참여자 모하마드

한편 연구진은 모하마드가 라메시를 모스크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친구에게 소개받은 점에 주목해, 모스크 자체가 안전망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그러나 모스크는 일자리를 구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정도이고, 주로 종교적인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답했다. 다만 방글라데시 사람들(중 무슬림)은 일단 새로운 지역에 오면 모스크가 어디 있는지부터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묻고, 주말마다 모스크에 방문하고 있었다(명절에는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임). 이 점을 고려할 때 모스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였다.

모하마드는 산재를 신청한 건 처음이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사업장을 변경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업무가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업주에게 별다른 치료나 보상을 요구하진 못하였고 진통제를 복용하며 일하다가 동료의 도움으로 직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만성화되어, 사업장 변경 후 잠시 본국에 귀국했을 때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사례는 이주노동자가 산재에 대처하는 방식이 반드시 산재보험이나 공상이 아닐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급성 질병이 아닌 업무상 상병은 대부분 알아처 치료하는 방식으로 다루어 짐을 보여준다.

첫 번째 공장에 많이 힘든 일 때문에 허리 많이 아파서 (사업장을) 바꿨어요. 근데 그거도 사장 사인 안 해줘서 3개월 후에 해줬어요. 사인해 줬어요.(황: 누가 도와줬어요?)공장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한

테 도움을 받았어요. (두 번째)염색 공장에 어떤 우즈베키스탄 사람. 오래 되는 사람, 사장 편 사람, 사장님의 많이 좋아하는 사람. 저에게 많이 많이 가혹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이거 세 번째 공장에서 이거 야간 주간(교대근무)이니까 몸 많이 많이 아팠어요. 몸 나빠 졌어요. 어떤 뭐 여러 개 병이 생겨서 바꿨어요. 마지막 공장에 지금 있어요.

- 연구참여자 모하마드

(황: 첫 번째 공장에서 허리 다쳤다 했잖아요. 허리 다쳤을 때 어떤 병원 치료 비용은 회사에서 내줬나요?) 거기서 그 첫 번째 공장에 한 기계 많이 무거운 일이니까 계속 사람들 왔다가 한 달 두 달 하고 가요. 허리 아파서 근데 허리 아파서 일반 약만 먹었어요. 거기 진단 안 했어요. 근데 그 아파서 그냥 공장 바꿨어요.

공장 변경 한 다음에 다른 공장에 가기 간 다음부터 6개월까지 허리 아픈 거 약 먹었어요. 나라(방글라데시)에 갔다가 MRI도 했어요. 그다음에 (자기 돈 내고)치료도 받았어요. 우리 나라에서.

- 연구참여자 모하마드

(5) 민

민은 2024년 여행 비자로 처음 한국에 왔다(현재 G1 비자). 그는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8년간 용접공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는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매형의 소개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건설팀에 소속되어 일하였으며,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로 한쪽 눈 실명을 경험했다. 민은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으며, 인공 안구 수술을 한 후 현재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 3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현장 건설 현장에서. 팀을 꾸려서, 그 팀이 이제 집을 빌리니까 같이 월세를 내서 사는 거예요. 매형이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그 팀을 소개시켜 줘서. 그때는 그 때도 매형이 거기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은 전국으로 돌아. 불러주는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매형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 연구참여자 민

산재 초기 대처는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안전 담당자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후 민은 사측의 산재 업무 담당자로부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 2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그는 바로 수용하기보다 회사가 제안한 보상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비슷한 산재를 겪고 공상 처리했던 동료에게 상의하였다. 동료는 수술비를 비롯한 치료 비용이 보상금보다 많다고, 해당 금액으로 공상 처리를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중 고향 친구로부터 연구참여자I를 소개 받아 산재보험을 신청한다. 그의 친구 역시 민과 마찬가지로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눈을 다쳐 연구참여자I의 조력을 받았다.

안전 담당자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황: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산재 신청이 된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다 냈죠. 회사 돈으로. (이때까진)산재 신청 안 했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회사가 보상해 주겠다. 산재 신청하지 말자 그랬어요. (...)(...)2천만 원만 준대요. 그래서 그 친구(회사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내 거는 2천만 원만이면 되냐 물으니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2천만 원만 받으면 나중에 수술도 다시 할 거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한다.

- 연구참여자 민

자기 베트남에 있는 고향에 아는 친구가 이미 산재를 당해서 조력자 연구참여자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친구가 소개해 줬다. 연구참여자가 (조력을)잘 해줬다고.

(황: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여러 군데 거쳐서?) 친구 베트남 노동자가 있어요. 연구참여자 단체의 회원인데 그 친구도 눈을 다쳤어요. 건설 현장에서. 이 친구가 바로 고향 친구예요. 그래서 바로 연구참여자 연락처를 줬고 다른(조력자) 사람한테 연락한 적이 없어요.

- 연구참여자 민

민은 한국 체류 기간도 짧고 비자 상태도 불안정했지만, 주위에 산재대처 경험이 있는 동포 친구들이 다수 존재해 성공적인 산재 대처를 할 수 있던 사례이다. 특히 이 사례는 산재 당사자와 적절한 대처 방법과 조력자를 소개해 준 친구들이 모두 건설업 종사자로 비슷한 유형의 산재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민은 실제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산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

가 없었고, 가까운 곳에 있는 동료와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산재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산재대처 경험이 있는 동료를 찾는 게 쉬웠고,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위험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 종사자로 산재를 겪은 친구가 주위에 자연스럽게 존재했다.

이처럼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산재 대처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산재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 주위에는 산재를 겪는 동료들이 계속 생기고, 그들의 대처 과정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에 대해 조언을 구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 중 일부는 산재보험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언을 구할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결과는 다르지 않더라도 그 신청까지의 해매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민의 사례를 듣는 과정에서, G1 비자가 산재 요양 기간 연장에 따라 생긴되는 방식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를 조력하는 연구참여자I에 따르면 G1 비자는 한 번에 길게 주지 않고, 최초 요양 기간과 연장 기간만큼 조금씩 체류 자격을 연장해 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담당의가 치료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산재 요양을 연장하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를 예약 후 방문해 비자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연구참여자I는 이 과정이 외국인에게 너무 번거로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 공단에서 요양기간을 승인해 주는 거 그 기간 따라서 산재 비자를 따라서 하는 거지 출입국사무소가 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서 맨날 비자 신청하러 갈 때 의사 소견서랑 그다음에 공단에서 승인하는 요양 기간 결정서 그 안에 기재하는 언제까지 치료해야 한다. 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출입국 사무소가 비자 연장 그때까지만 주고 그래서 계속 연장하니까 되게 불편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외국인이 한국말 모르는데 서류 발급하는 것도 힘들고 또 예약을 해야 돼요. 출입국 사무소 근데 예약은 몇 개월 전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놓치는 게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공단에서 (요양기간을)9월 달까지 준다 그러면 여유 있게 (비자를)한 달 더 줬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줘요. 공단에 잡아 오는 날. 그렇게 인색하는 거야. 노동자 다치는데 그렇게 인색해요.

- 연구참여자

(6) 소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산재대처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는 어느 단계에서 사업주와 갈등(혹은 이견)을 빚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졌다. 먼저, 공상 처리 후 원직장으로 복귀한 마르코의 경우 산재대처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을 겪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수술 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보장 받았으며 그 기간동안(1달) 월급도 받았다. 한편 민은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회사가 납부해 주었다. 그러나 회사가 제안한 보상 금액을 수용할 수 없어, 동포 친구에게 소개받은 조력자와 산재를 신청한 경우이다.

나머지 카를로스, 라메시, 모하마드는 모두 초기 의료 대응에서부터 회사와 갈등을 겪은 사례이다. 이들의 사업주는 모두 병원 진료에 소극적이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요구를 무시한 채 업무에 투입했다. 그 결과 이들은 근무시간 중 사업장을 홀로 이탈해 큰 병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증상이 악화될 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후의 산재보험 신청 과정에서도 사업주에게 굉장한 방해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생계비와 거주지 문제를 겪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선의 산재 대처는 사업주가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한 후 산재보험을 신청해 주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장기화될 가능성 이 낮을 경우- 공상으로 원만히 처리해 주는 것이 고통이 적은 방식임을 시사한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동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주거 및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조력자를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일 수는 있지만 대처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었다.

둘째, 산재대처방식을 두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을 경우, 이주노동자는 가까운 친구부터 페이스북 커뮤니티까지 에스닉 네트워크를 긴급 안전망으로 활용하였다. 이주노동자는 산재 대처를 위해 사업장 외부에 거주지를 구하고 치료비를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술 보호자도 구해야 했다. 사업주 의사에 반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에스닉 네트워크를 통해 거주지, 생계비, 보호자를 모두 구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처를 상의하고 조력자를 소개해 줄 사람 역시 에스닉 네트워크에서 구하였다. 즉, 에스닉 네트워크는 산재대처 과정에서 긴급 안전망과 성공적인 대처를 위한 조력자(소개) 두 가지 기능을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었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는 승인(공상)-요양-복귀로 구성되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과정 이외, 비자 유지가 중요했다. E9 산재 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하에서 체류 자격 연장이 고용주 재량이라 비자 연장을 앞두고 있을 시에는 사업주 의사에 반하는 대처 방식을 택하기 어려웠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주 반대를 무릅쓰고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비자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면 임시 체류자격인 G1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산재 요양 기간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갱신되는데, 출입국 당국 역시 산재 요양 중인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요양 갱신 기간에 맞추어 수주 단위로만 연장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매번 사전 예약을 거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의 조력이 없이는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는 산재로 불리는 사건들 이외 건강 문제로 인한 사업장 변경과 병가를 받고 일시 귀국해 병원 진료를 받고 복귀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명확히 업무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 상병을 산재라고 부르며 공식화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모하마드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그는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는 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달에 걸친 노력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증상이 계속되자 본인 부담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카를로스도 한국에서 신체 부담이 높은 일을 오랫동안 한 결과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을 따지기보다, 본인 부담으로 한의원과 진통제로 통증을 관리하며 일했고 병가를 받아 본국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건강이 나빠지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국보다 본국에서 치료받는 것을 선호하는 이주노동자가 많고, 상태가 심하거나 회복이 더뎌 해고되면서 완전히 귀국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노출되는 건강 문제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이주노동자 산재 대처와 에스닉 네트워크

1) 긴급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

이 장에선 에스닉 네트워크의 긴급 안전망으로서 기능과 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연구진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에스닉 네트워크가—특히 사업주와 갈등을 겪는—이주노동자에게 초기 대처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친한 동포 친구들이나 친척처럼 가까운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도망쳐 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의 수술비를 빌려주고, 요양 기간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⁵⁾.

특히 라메시 사례의 경우 그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데 결정적인 조력을 제공한 것은 전문 조력자 연구참여자D를 만난 것이었지만, 그에 앞서 사업장에서 탈출해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자신의 주거지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수술비를 납부해 준 동포 친구였다. 라메시는 친구에게 돈을 조금씩 갚고 있지만, 당시 몸이 좋지 않은 그에 큰 금액의 수술비를 할부로 결제해 준 것은 금전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조력임이 틀림없다. 카를로스 역시 자신의 삼촌에게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홀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친한 친구나 친척처럼 개인적인 친분이 강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에스닉 네트워크는 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재 대처를 하 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였다. 그중 하나는 성당이나 모스크 차원의 임시 거처 제공이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활용한 모금이나 보호자 대행 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에서 모금을 많

5) 연구참여자H는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에 의해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흔하고, 이 경우 임시 거처로 친구 집이 가장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E9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기숙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친구는 미등록 지위로 다른 미등록 친구와 공동으로 지내는 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스스로 모금에 참여한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통역이나 보호자 대행처럼 당일에 동행이 필요한 조력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에스닉 네트워크 조력의 지속 불가능성

지금까지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에스닉 네트워크가 산재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관대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인 이주민들은 “동포끼리 서로 돋는다”는 동포에 대한 상호부조 의무를 내면화하고 관대한 조력을 주고 받았다. 여기서 관대하다는 것은 조력의 금액이 큼을 의미할 뿐 아니라 수술 보호자처럼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수행할 역할을 대리한 후 며칠간 간병을 해주는 등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수행해 줄을 뜻한다. 이러한 조력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의 반대를 뚫고 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고, 수술을 하며,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요양을 지속하는 등 자신의 생각하는 적절한 산재 대처를 지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관대한 조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한계도 존재했다. 연구진이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과정과 전문 조력자 인터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에스닉 네트워크의 한계는 동원 가능한 자원의 한계보다 동원의 지속 가능성에 있었다. 즉, 가까운 친구와 친척의 도움을 받거나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게 했다.

우선 금전적 지원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월급 중 대부분은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의 모금 역시, 온라인 모금의 특성상 하나의 모

금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나면 화제가 다른 모금으로 이동되기 쉽다. 이는 동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명의 사람이 반복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한다.

한편 간병과 같은 물리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원의 경우, 이주노동자에 국한해 논할 경우 금전적 지원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낫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진행되는 모금에 참여한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간병은 물론 병문안을 가본 경험조차 드물었다. 제조업 부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장기간 근무하고 휴일이 하루뿐이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휴일에도 근무지로부터 멀리 외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F는 자신이 조력한 산재 노동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동포 친구가 일을 잠시 쉬며 돌보고 있지만 친구 역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돌봄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은, 금전적 조력만큼 돌봄 조력이 필요하지만, 에스닉 네트워크 안에서 이러한 돌봄 조력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산재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을 초청하기도 하지만, 미등록 등 비자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경우 출입국에서 가족 초청 심사를 매우 자의적이고 까다롭게 하는 진행하기도 해 돌봄 공백이 가중되었다.

지금은 이때 일단 커뮤니티 분들 좀 도와주셔 가지고 같이 이제 거주하시는 그 지역에서 도움받으시면서 거주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이분을 돋고 계속 이분의 옆에서 좀 이분을 돋고자 하시는 그 친구분도 업이 있으시니까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계속 그걸 못하고 계시는.

- 연구참여자F

이처럼 에스닉 네트워크 내의 돌봄 자원의 부족은,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가 산재 초기 대처에 효과적인 한편, 조력이 장기지속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한계를 가지기 쉬움을 시사한다. 즉, 에스닉 네트워크는 긴급 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크게 가지고 있다. 반면 중증도가 높아 요양 기간이 길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나 질병처럼 치료와 산재 승인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이 주노동자는 에스닉 네트워크의 조력만으로는 한국에 남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즉, 에스닉 네트워크의 조력은 단기간에 요양을 마치고 재취업할 수 있거나 요양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조력의 유형을 빠르게 산재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효과적인 셈이다. 산재 대처를 두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는 산재 노동자가 요양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산재보험의 통로가 되는 조력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혹은 만날 때까지 베틀 자원이 없는 경우-귀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이주노동자 산재대처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J “애매한 산재”가 가장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애매한 산재란 긴급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에만 의지해서 요양을 종료하기에는 회복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치명적인 산재는 아닌 경우를 뜻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사고 산재인데 중증도가 높으면 사업주는 대부분 산재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병원에서도 산재를 권하고 사업주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개인 보상으로 진행할 경우의 부담을 오히려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 역시 요양 종결 이후에도 한국에서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근로 능력 손실로 불가능하고 스스로 원치도 않아, 장해 등급을 높게 받아 보상을 최대한 잘 받은 후 귀국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문제가 딱 이벤트가 생기면 맨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는 병원에 가는 거가 되겠죠.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누가 봐도 매우 심한 문제다면 회사든지 병원이든지 일하다 다쳤으니까 산재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대충 며칠만 치료하고 대충 그냥 대충 꿰매고 마는 정도라면 굳이 산재 신청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단이 되거나 이렇게 정도의 아이고야 이게 큰일 났네 할 정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산재 신청을 가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작게 다쳤거나 애매한 정도라면 그냥 회사 병원에서도 별 이야기 안 하고 회사에서도 산재 발생했다고 하는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공상으로 치료하게 되겠죠.

- 연구참여자J

그래서 어쨌든 그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또 재취업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이분(이주노동자)들 생각은 장애 등급 잘 높게 받아서(보상금 갖고) 그냥 본국으로 가는 게 맞는 거겠죠. 본인들 생각에는 일하기도 쉽지 않고 트라우마도 심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은 이제 그 귀국을 선택하는 것 같기는 해요 (...).

본인도 힘드시니까요. 사업주에서도 이제 이분은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특별히 안전하고 간단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E9 근로자를 초청해 오는 데가 3D 업종이고 한국 사람들은 취업 안 하려고 하는 거고.

- 연구참여자G

그래도 이 다치기 이전에 100%는 아니지만 최소 70~80% 이상의 노동력이 있으니. 일을 할 수가 없으면 본국에 가야지 여기서 어떻

게 살아요? 자기가 자기 노동력이 없으면 못 살아남죠. 한국에서는. 노동력이 없으면 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 연구참여자H

3) 에스닉 네트워크 내 불평등과 조력에 대한 접근성 문제

이 절은 에스닉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조력이 본국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한국에서의 비자, 일자리 특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주어질 가능성 을 다룬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모하마드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수천 만원씩 모금에 성공할 때도 있지만, 자신은 소수 종교라 몇십만원 밖에 모금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본국에서의 소수자성이 한국의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동원 가능한 조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이는 난민(신청자)인 산재 노동자의 사례에선 더욱 두드러진다. 연구 참여자F에 따르면 난민은 본국에서 소수자성이 강한 집단이 대부분으로, 본국 에스닉 네트워크에 가까워지거나 본국의 다수 집단에 속한 사람과 마주 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난민은 초기 정착 및 긴급 안전망 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뜻한다.

난민은 되게 소수자 집단이니까 예를 들면 그 국가 안에서도. 이제 주류와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류를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멤버이시기도 해서 예를 들면 소수 민족 이유로 오셨으면 그분이 다수 민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는 전혀 못 가시고 성소수자 이런 이슈가 있어도 그렇고 뭔가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해서 커뮤니티가 되게 구성되기가 어려운 조건이고 (...) 같은 커뮤니티를 되게 오히려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연구참여자F

이 때문에 난민들은 국적별 난민끼리 작은 조력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이 다수 포함된 주류 에스닉 네트워크와 달리, 난민들은 일자리가 없는 자의 수도 많고 한국어에 능통하고 체류 자격이 안정적인 구성원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긴급 안전망으로서 기능은 급한 돈을 빌려주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긴급한 상황에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으로 다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조력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일단 언어 문제도 되게 크고 난민 분들이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경우 있지만 한국어 소통은 사실 거의 어렵고 또 아랍어나 이제 진짜 소수 언어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 이민자나 이제 이주 노동으로 오시는 그 국가권하고도 또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통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소통의 어려움이 좀 해결되면은 해결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 연구참여자F

또한 난민이 본국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은 대부분의 본국에서 형성된 인간 관계가 한국 생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의 낮음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알 수 있듯 고향 친구나 친척 등 본국에서 가까운 유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일차적인 조력자로, 이들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조력은 산재대처 과정에서 조력자를 구하기 위한 시간을 단축해줘 말 그대로 긴급 상황에 유용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이제 본국하고 아무래도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본국에서 받아와야 되는 서류들을 못 갖고 계신 예

를 들면 가족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을 수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난민이라서 조금 더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고. 여권 같은 경우도 가장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뭘 하려고 할 때 여권을 요구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심사가 계속되다 보면 이미 여권 기간이 만료했는데 본국 대사관을 갈 수가 없어서 여권이 연장을 못하시는 사례들이 있으신데 이제 여권이 없으면 행정처리들이 계속 안 돼요.

- 연구참여자F

(2) 미등록 노동자 역시 에스닉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가능성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등록 외국인으로, 미등록 친구가 주위에 많은지 묻는 연구진의 대답에 일부 있지만 많진 않다고 답했다. 참여자들은 그 이유를 각자 다양하게 덧붙였는데, 이들의 답변은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미등록 노동자들이 겪는 특수한 취약성을 드러낸다.

라메시는 미등록은 비자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걸 꺼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사소한 감정 다툼이 계기가 돼서 자신을 신고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포가 다른 동포를 비자 문제로 신고하는 일은 아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로 인식되었으며,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가까운 사람이 동포에게 신고당해 도망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미등록이 난민만큼 에스닉 네트워크 주류와 교류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에서 어울릴 때 생기는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다.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다큐먼티드 사람들은 비자 있는 사람이랑 좀 많이 안 모여요. 무서워셔요. 만약에, 나랑 조금 싸웠어요. 내가 잡아줄 수도(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제 친척도 2년 동안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동안 두 군데 공장에서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출입국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척이 있는 회사를 누가 신고한 거예요. 신고한 사람도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그 회사에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마르코는 미등록 노동자는 회사를 자주 옮기고, 그에 따라 거처를 옮기는 경우도 많아서 친해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에게 미등록 노동자는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이동성 가진 자인 동시에, 단속을 피해 혹은 단속에 걸려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자이다. 이들의 높은 이동성은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체류 자격 상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는데, 결과적으로 직장과 지역에 기반해 확장되는 동포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제약할 가능성성이 있었다.

(황: 커뮤니티 친구들과 어울릴 때, 비자 상태는 다양한가요?) 불법 체류자는 정말 소수예요. 제 친구 중에 불법 체류자는 한 5% 정도 될까요. 나머지는 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 체류자인지는 눈치로 알게 돼요(...). 요즘은 불법 체류자들과 잘 연락이 안 돼요. 그들은 자주 회사를 옮기니까요. 오늘 채팅해도 내일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해지기 어려워요. 하지만 비자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회사를 자주 옮기지 않아서 연락을 계속하고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 연구참여자 마르코

필리핀에서는 그런 사람을 ‘TNT’라고 불러요. ‘타고(Tago)’라는 말

에서 나온 건데, 한국어로 하면 “숨는다”는 뜻이에요. 불법 체류자는 숨어야 하니까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출입국 단속에 잡히면 어쩔 수 없죠. 그런 현실이 참 힘들어요. 일을 열심히 해도 법적인 지위가 없으면,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죠.

- 연구참여자 마르코

4) 소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는 국가와 사업주가 비워둔 공백을 메우는 ‘긴급 안전망’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고 직후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일시적 버팀목’일 뿐, 재해 이후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안전망이 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금전적 한계와 시간의 빈곤으로 인한 자원의 이중 고갈 문제이다. 에스닉 네트워크의 조력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자들의 연대에 기반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가계수입의 상당 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주체로서, 네트워크 내에 축적된 잉여 자본이 극히 적다. 페이스북 등 온라인 모금은 단발적 화제성에 의존하므로, 장기 요양이나 질병성 재해처럼 긴 호흡이 필요한 사건에는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시간의 빈곤이다. 조력자들 역시 가혹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중증 재해자에게 필수적인 상시 간병을 제공하는 것은 본인의 생존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선택이 된다. 즉, 에스닉 네트워크 내의 돌봄은 조력자의 노동력 상실을 담보로 하는 비지속적 희생에 가깝다.

둘째, 애매한 산재에 대한 제도로의 이행 실패 문제이다. 에스닉 네트워크는 아주 경미하거나, 공상처리된 사건이나, 아주 치명적인 사례사이의 애매한 산재 사이에서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다. 중증도가 높아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산재 보험 체계로 편입되지 못한 경우 에스닉 네트워크는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결국, 네트워크의 조력이 공적 보험이라는 제도적 경로로 빠르게 전환되지 못할 경우, 이주노동자는 네트워크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상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축출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에스닉 네트워크 내 배타적 포용에 관한 문제 역시 존재한다. 본국에서 종교적, 정치적 소수자는 네트워크 접근 자체가 차단되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규모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네트워크 내에서 조차 ‘신고의 위협’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장 취약한 자가 가장 빈약한 안전망에 의존해야 하는 역설을 낳는다.

6. 산재보험 접근 통로로서 에스닉 네트워크

1) 산재보험(조력자) 소개받기

앞서 본 연구참여자인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우, 모두 동포의 소개로 전문 조력자를 만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산재보험 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소개해 준 동포와 산재 당사자 간의 관계는 친척과 고향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부터 아르바이트나 종교 활동 중 우연히 만난 사이까지 다양했다.

카를로스는 친척인 삼촌에게 이주민 센터를 소개받아 산재를 신청했다. 그는 사업주가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은 채 업무 복귀를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삼촌의 소개로 이주민 센터를 알게 되면서, 산재보험을 신청해 승인받고 사업주와의 소송에서 이겨 보상금도 받았다.

민은 고향 친구에게 조력자 연구참여자I 소개 받아 산재를 신청했다. 그의 친구는 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산재를 겪은 이주노동자로 연구참여자I의 도움을 받았다. 민은 회사 산재 담당자로부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지만, 비슷한 산재를 겪은 동료에게 상담한 결과 보상 액수가 치료비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 거부하였다.

반면 라메시와 모하메드는 우연한 계기로 조력자를 만나게 된 사례이다. 라메시는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 거처에 살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당시 생활비가 부족했던 라메시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서 만난 동포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산재보험 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소개해 줬다.

모하마드은 사업주에게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월급과 치료를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공상 처리를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처음 1개월만 월급을 준 뒤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일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어느 날 모스크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본 연구의 참여자인 라메시를 소개받는다. 모하마드는 라메시를 통해 연구참여자D를 만나 산재 신청을 했다.

본 연구의 사례는 에스닉 네트워크는 산재보험 접근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지만 통로 자체의 공식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즉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 산재보험 신청 관련 조력자와 연결해 줄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산재 당사자는 그 사람과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른 채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 사이에서 산재보험 신청까지의 기간이나 과정이 서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 수준에서 산재 발생 직후에 산재보험 관련 조력자를 만날지, 초기 대처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을 스스로 어렵게 마련한 후에야 조력자를 만나지는-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운에 달리게 된다.

2) 조력의 거점으로서 이주민 활동가

이 절에선 산재보험 접근의 통로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한계인 비공식성이 보완된 사례로서 연구참여자I를 자세히 다룬다. 이주 단체를 운영하는 연구참여자I는 결혼이주 여성으로, 이주 초기에는 노동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통역 일을 하던 중 이주노동자 투쟁을 지원한 일을 계기로 한국 이주 단체와 관계를 맺고 이주노동자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관심은 이후 그가 비영리 이주단체를 설립하고, “베트남 사람들 돋는 일”을 지속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어떤 형태라든 상관없이 제가 하는 일은 그래서 노동자도. 베트남 인들을 도와주는 거라서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 오는 게 그게 자연스러워요.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 연구참여자I

연구참여자I가 돋는 방식은 통역과 병원 동행부터 비자 연장이나 산재보험 신청까지 다양했다. 그는 조력을 지속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회비를 받는 일종의 상호부조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동포를 도울 때 법률 전문가들처럼 지원 자체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보다, 자신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도록 했다. 이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한두 번의 사건이겠지만, 회비는 장기적으로 납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다른 동포가 납부한 회비를 통해 도움을 받고, 나 역시 다른 동포의 어려움에 기여하는 순환을 만들어 낸다.

베트남 통번역 센터를 운영하다가 베트남 사람들 더 잘 돋기 위해 서. 그냥 우리는 비영리 단체거든요. 이주민 센터는 돈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해요. 회비만 받아요. 그래서 통번역비도 안 받아요. 그전에 통번역비 받으면서 활동하는데 그거를 없애고 이주민 센터로 바꿔서 이주노동자를 돋고 그들은 회원을 해서 필요할 때 통역할 때마다 연락 와서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 연구참여자I

한편 연구참여자I는 오랫동안 조력을 지속해 온, 베트남 이주민 사회 내에서 잘 알려진 조력자이다. 여기서 잘 알려졌다는 것은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참여자I를 통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사람들

이 알고, 어디서 그를 만날 수 있는지(단체 이름이나 개인 연락처) 역시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구참여자I는 베트남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에 제 연락처가 벽에 있대요. 제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 연락처 어디 있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 정도로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어떻게 이 노동자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늘도 어제도. 저는 홍보 안 하고 노동자들이 알아서 연락처를 주고받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됐어요.

- 연구참여자I

연구참여자I의 조력자로서 유명세는 산재보험 접근 통로의 비공식성이 산재대처 과정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를 상당히 해결해 준다. 조력자의 유명세는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다가 우연히 적절한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한 조력자를 찾을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I는 매일 도움이 필요한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들을 직접 조력하거나 다른 조력자를 소개해 줬다.

저는 노동자들이 이제 연락처 주고받으니까 어디든지 연락이 오면 제가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그 연대. 저희가 제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지역의 있는 센터들을 연결을 해줘요. 연대 활동하거든요(...).

지역마다 저희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다 넘기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한테 넘기는 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넘겼어요. 그분 □□□이 이제 비자를 신청해 주셔요. 그러니까 대구니까

제가 못 가니까 저희는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산재도 신청해 주고 뭐 그런 활동을 하니까.

- 연구참여자

특히 주목할 점은 연구참여자I가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찾는다”고 표현한 부분이다. 이는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그 위치와 접근 경로를 알 수 없어 관계망을 이리저리 탐색해야 하는 상태, 즉 “헤매는” 상황과 뚜렷이 구분된다. “찾는다”는 것은 조력자가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이미 인지된 조력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산재대처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인다. 즉 조력자의 유명세는 개인 자원화되기보다 이주민 사회의 산재보험 통로의 공성식으로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

맨날 그 홍보를 하고 노동자 찾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노동자가 저를 찾아야 돼요.

- 연구참여자

연구진이 인터뷰 과정에서 접한 사례 중 연구참여자I와 함께 언급할 만한 이주민 활동가는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이다. 이주노조 활동가인 연구참여자A는 위원장이 오랫동안 상담과 조력을 해온 사람으로서 네팔 이주민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물론 그의 역할은 네팔 이주민 사회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네팔 이주민 사회에서 ‘유명인’으로 통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어,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접촉점으로 인식되었고, 매일 여러 건의 조력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거 이제 우리 노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워낙 오래

이제 활동을 해오시고 조력을 많이 하고 지원을 해오셨으니까(...). 사실 그 네팔 사회 내에서 위원장님 따라 위원장님의 이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거의 다 알 거예요.

- 연구참여자 A

(최: 노조에서 이제 활동 중에 이제 이런 실무적인 지원이라고 할까요? 상담 같은 것에 비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시는지?) 상담이 반 이상이죠. 반 이상 위원장님 하루 종일 전화를 못 잡고 있어요. 하루에 한 50통 이상 받을 거야. 눈 뜨고부터 저녁 밤에 자기 전까지.

- 연구참여자 A

3) 법률 전문가의 홍보 창구로서 에스닉 네트워크

지금까지 에스닉 네트워크가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동포를 통해 산재보험 신청에 도움을 줄 조력자를 소개받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산재 노동자는 모두 동포의 소개로 비영리적 성격의 조력자(단체)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다만 이주노동자 인터뷰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언급되었고, 전문 조력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주노동자가 만날 수 있는 산재보험 신청 조력자는 크게 비영리 부분의 이주 활동가들과 영리 부분의 법률 전문가이다. 이 절에선 산재대처조력자로서 법률 전문가가 에스닉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으로 이주 산재 노동자를 찾는 방식을 다룬다.

그 전에 간단히 언급해 둘 점은 본 연구의 참여자는 조력자로서 법률 전문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본인 혹

은 친구가 산재대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를 선임했는데 돈만 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경험이 있어, 이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주 활동가는 종종 돈을 받고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함께 산재를 겪은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하고 조력을 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람들 이거 문제 생기면 그다음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아 브로커들 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아 100% 산재 받아 줄게요. 이렇게 해서 돈 받아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그거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 내가 소개해 준 사람. 그 사람 돈 육십만 원 먹고 갔어요. 이렇게 많이 먹고 갔어요(...). 연구참여자 모하마드 씨도 이런 거(브로커) 많이 많이 돈 낸 적 있어요 다른 사람 한테. 돈 먹고 갔어요 뭐 일 안 했어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접근과 대처가 공격적이라는 것은 결혼 아주 여성이나 유학생처럼 한국어에 능숙한 동시에 에스닉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이주민을 통해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에 다소 과장된 홍보를 하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무조건 산재하고 보상금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로 현혹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지원 단체가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시장이 그전부터도 있지만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데들은 다 뭐냐면 중간에 일종의 사무장들

개념처럼 건수를 물어.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 나라별로 다 그걸 둬요. 그래서 사건도 가져오는 거고 또 어떤 통역 절차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결혼 여성들이나 유학생들 중간 그 사람들도 그러면 일거리가 생기는 거고(...).

변호사 사무실이 요즘 많아요. 변호사 사무실들은 한국어 좀 하는 여기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그럼 이주 여성들을 채용을 해서 그래서 마케팅 역할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또는 고객을 유인하는 그런 페이스북이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 연구참여자I

먼저 (산재노동자에게)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쳤다고 하면 그렇다고 다쳤다고 하면 너 돈 받게 해줄게. 그거(법률사무소 통역들의 접근)를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의(확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의 영역이 넓혀졌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러한 똑같은 역할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브로커들이에요.

물론 100% 다 선의야 100% 다 사기야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죠. 한국 사람들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쳤네 보상받게 도와줄게라는 개념이 정말 그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줄게일 수도 있고 다쳤네 먹잇감이네(인것일 수도 있고).

- 연구참여자II

연구진은 본 연구의 인터뷰를 토대로 산재 노동자를 조력하는 법률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만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에스닉 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가 조력자를 찾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 한국인 법률 전문가가 에스닉 네트워크와 자신의 연결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고객을 찾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을 찾는 법률 전문가 중 일부는 돈을 받고 문제는 대결해 주지 않거나 무리한 조건으로 소송하다가 의뢰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약탈적 행태를 보인다.

그렇게(법률 전문가 조력받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진짜 다친 사람 입장에서의 생각도 못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일종의 부작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을게요. 그냥 절차 상대로 해가지고 500만 원의 어떤 보상 내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갖고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500도 못 받고 정말 100만 원 받거나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뭐가 좋네 뭐가 나쁘네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 연구참여자H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 노무사님들 잡고 산재 신청한 다음에 제가 승인 받았어요 그것도 있어요. 승인 안 받았어요. 돈 먹고 그냥 갔어요. 그것도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런 거 가끔 올라와요.

(황: 브로커는 어떻게 접촉 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 문제 생기면 그다음에 여기 여기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아 브로커들 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100% 산재 받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돈 받아요. (연구자: 병원에 와요 아니면 커뮤니티 페이스북에?) 이거 페이스북에다 올려요. 그 다음에 친구들 통해서도 이렇게 알아요. 아니면 거기 노동부에 고용센터 가면 고용노동부 가면 오디 갈 때 거기 길에서 만나요. 이렇게 있어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이때 주의할 점은 법률 전문가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에스닉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법률 전문가는 구성원들이 자신이 접근 가능한 공적 안전망이 있고 그 과정을 조력해 줄 사람 역시 존재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홍보는 에스닉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 활동가의 조력을 받는 통로의 비공식성의 문제를 개선하는 면이 있다. 연구참여자D가 스스로 비유했듯 비영리 산재조력자는 “바다에 떠 있는 쪽배 같은 처지”로, 찾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을 주겠지만 수 자체가 적어 접근성이 낮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확률은 아주 적으니까 그냥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그냥 쪽배 같은 처지니까.

-연구참여자D

저도 이제 매번 느끼는 우울함이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에 들어오지 못한 이 프로세스를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많은 훨씬 더 많은 99% 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이 첫 번째가 좀 있고.

-연구참여자K

여기서 문제는 에스닉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영리 목적 법률 전문가 중 신뢰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수준에서 이들 중 누가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법률 언어는 비법률 전문가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경우 제한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배경지식 위에서 신뢰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에스닉 네트워크를 통해 비영리 조력자를 찾는 과정이 행운의 결과로 읽힌 것처럼, 에스닉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온 영리 조력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일 역시 행운에 달리게 된다. 이 지점에서 ‘행운’이란 우연 그 자체라기보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정보 환경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개인에게 전가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산재보험 접근 통로로서 에스닉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인 동시에 언제 조력자를 찾을지 모르고 조력자의 신뢰성을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공간인 것이다.

아직 성과가 제한적이지만 집단 수준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연결되려는 노력은 비교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일례로 연구참여자 G는 국가별로 공동체 내부에서 키워진 법률 전문가가 “틀림없이” 있고, 본인은 결혼 이주자의 자녀들은 한국과 한국 내 이주민 공동체 사정에 어느 정도 능통한 자신의 매개자로서의 가능성을 자원화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본인들이 만약에 진짜 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 커뮤니티 내에도 틀림없이 있어요.(최: 커뮤니티 내에 노무사 같은 게 있다는게?)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지난번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도 그 중도입국 청소년이에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나중에 이제 한국 아빠가 이제 그분을 입양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을 나와서 그런. 행정사 사무실 뭐 이런 데로 하는데 행정사 사무실이지만 온갖 노무부터 시작 국적 취득부터 모든 일을 다 하는 곳.

이분이 베트남 사정도 알고 한국 사정도 잘 아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분들에서 어떤 이제 도움을 주는 목적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도움 플러스 이제 그다음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될 때는 어쨌든 뭐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 그렇게 키워진 인력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 연구참여자G

연구참여자J은 자신에게 연락해 오는 이주노동자의 대표적인 국적을 몇 가지 꼽으며,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에서 오랫동안 이주민을 조력하는 일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그들에게 어느정도 “믿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주민과 그가 속한 이주민 사회가 역시 자체적으로 누가 믿을 만한 조력자인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연구참여자H 역시 여러 번의 연결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 평가되는 자신을 찾아오는 일화를 들려줬으며, 이 일화는 이주자 사회가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된 사람들의 정보를 널리 공유함을 보여준다.

(황: 이주자 입장에서 좋은 노무사 좋은 행정사 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운인가요?) 아니요. 선배들 믿을 만한 거는 선배들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 내 나라 사람 자기 사람 자기 나라 그게 이제 핵심이죠. 자기 나라 모임에서 평판이 좋고 선배가 소개해 주는 변호사 노무사 외국인 센터 그 사람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

저도 뭐 한 20 몇 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믿음들이 조금 나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단체나 어떤 개인들도 나름의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연구참여자J

무엇보다 흥보고 안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친구들 하나
하나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면 그 친구들 통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알아서 입소문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문자 온 거 친구 인도네시아 친구 어디 섬에서
우리 우리 군산에 있는 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부르
면서 이 친구는 한국말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김○○ 선생님이라고. 유추가 되시죠 김 씨는 들었고 ○○지역이고.
근데 그게 이제(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구전구전하다 보니 누
군가는 애시당초 제대로 알고 ○○지역에 있는 김 선생님이 한테
도움을 청하면 될 거야라고 했겠죠.

- 연구참여자H

정리하면, 에스닉 네트워크 내부에서 ‘잘 알려진’ 조력자의 존재는 이주노
동자의 산재보험 및 권리 구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유명
세는 단순히 이름이 알려졌거나 공식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력
이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구체적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경험이 누적되면서
형성된 결과이다. 이주민 사회에서 조력자의 유명세란 누군가를 ‘안다’는 사
실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 산재보험이 승인되었고 체불임금이 해결되었으
며 체류자격 문제가 중재되었다는 구체적인 성과가 구전을 통해 공유되며
형성된 집단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력자의 유명세가 형성되는 과정은 단순한 평판의 확산
이라기보다, 에스닉 네트워크가 제도 접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위
험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 가능한 조력자를 식별하고 그 기준을 형성해 온
집단적 실천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에스닉 네트워크가 위험을 완화하는

방식은 단일하지 않다. 접근 통로와 정보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통해 제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안전망으로 작동한다. 이때 ‘잘 알려진’ 조력자의 존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접근의 기준으로 기능하며, 정보의 질을 구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반면, 에스닉 네트워크 내부에 조력자에 관한 정보와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될 경우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이 경우 조력자의 유명세는 단순한 인지도라기보다, 반복된 성과를 통해 검증된 선택지를 가려내는 선별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역할이 서로를 대체하거나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처한 정보 환경과 제도 접근 조건에 따라 동시에 요청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에스닉 네트워크는 한편으로는 접근 통로가 희소한 상황에서 제도에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가 누적된 조건에서 위험한 선택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조력자의 유명세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실마리로, 선택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돋는 정보로 활용된다.

7.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 역할을 주목했다. 이주노동자와 전문 산재 조력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산재 당사자와 조력자는 서로 구별되는 집단이 아니었다. 산재 당사자는 피해를 계기로 산재대처 과정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은 추후 동포들의 산재 대처를 조력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조력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호부조 문화는 이주민 사회의 특성으로, 이주민들은 초기 정착부터 위기 대처까지 다양한 조력을 서로 주고 또 받았다. 여기서 조력을 주고받기는 반드시 조력을 준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주 선배에게 받은 조력을 후배에게 혹은 산재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경험하는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이런 에스닉 네트워크 안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경험은 개인적 비극인 동시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동포를 도울 수 있는 자원으로 쓰였다.

한편 에스닉 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크게 긴급 안전망과 산재보험 접근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에스닉 네트워크는 산재대처 과정에서 사업주와 불화를 겪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나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치료와 요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력을 제공했다. 이 조력에는 임시 거처나 수술비와 같은 물질적인 성격의 것도 있고 병원 통역, 간병, 수술 보호자 역할처럼 대면 상태로 제공되는 돌봄 성격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조력은 고향 친구나 친척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제공하기도 하지만,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면 동포인 점을 제외하면 모르는 사이인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도 흔했다. 다만 안전만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는 관대한 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한 사람에게 장기

적으로 제공될 수는 없어, 산재 대처를 단기간에 끝내기 어려운 사람을 돋기 에 한계가 컸다. 즉 긴급 안전망의 성격이 강했다. 한편 안전망으로서 에스 닉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은 본국 지위나 비자 상태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한계도 존재했다.

에스닉 네트워크는 산재보험의 접근 통로 역할도 했다. 산재 당사자인 연구참여자는 모두 동포에게 전문 산재조력자를 소개받아 산재보험을 신청했으며, 앞서 언급했듯 산재 당사자들은 자신이 산재대처 과정에서 알게 된 전문 산재 조력자를 다른 동포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산재 대처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당사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고, 당사자는 개인적인 조력과 자신에게 도움을 준 전문 조력자를 소개해주는 다리 역할을 모두 수행했다.

다만 산재보험의 접근 통로로서 에스닉 네트워크도 한계를 가졌다. 먼저 비영리 산재 조력자는 신뢰성이 높지만, 이들을 찾는 경로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산재 당사자 입장에서 비영리 산재 조력자를 만나는 것은 운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오랫동안 조력을 지속한 전문 조력자의 경우, 이주민 사회에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으며, 조력자의 유명세는 이들을 찾는 경로를 비교적 공식적으로 만들어줬다. 즉, 유명한 조력은 이주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헤맬 필요 없이- 찾을 수 있는 조력의 거점이 되었다.

한편 에스닉 네트워크는 이주민에게 산재보험의 접근 통로인 동시에, 영리로 산재 대처를 하는 법률 전문가들에겐 고객 확보의 통로이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무실에 국적별 통역을 고용해서, 이주민 사회(특히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산재 보상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 이는 비영리 조력자를 만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산재보험 접근 통로를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

다. 그러나 에스닉 네트워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법률 전문가 중 일부는 돈을 받고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약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에스닉 네트워크를 통해 조력자를 찾는 과정에 사기 피해 위험을 지도록 했다. 이주민 개개인이 법률 전문가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주민 사회에서 신뢰받는 동포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조력자 정보를 널리 공유하는 대응이 확인된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를 제도 접근의 실패나 피해 경험으로만 환원하지 않고, 에스닉 네트워크가 긴급 안전망이자 산재보험 접근 통로로 작동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산재 당사자와 조력자가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산재 경험을 계기로 조력자로 전환되며 지식과 조력이 순환되는 상호부조적 구조를 밝힘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를 관계적·집합적 실천으로 재개념화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에스닉 네트워크가 공적 안전망의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접근의 불확실성과 불평등, 그리고 약탈적 개입의 위험을 내포한 양면적 안전망임을 드러냈다.

2) 한계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 자료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산재 대처가 가능했던 사례, 즉 일정 수준의 조력이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에스닉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했거나, 조력자를 찾지 못해 산재 대처에 실패한 사례, 혹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배제된 이주 노동자의 경험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노동자 전체의 산재대처 경험을 대표하기보다는,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했던 일부 경로를 중심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제조업 등 남성 중심 산업에 종사하며, 최소한의 제도 접근 가능성이 있었던 이주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료가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로 인해 여성 이주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혹은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산재 경험과 대처 과정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였다. 이들 집단은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 작업장의 고립성,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산재 발생 이후 공식 제도는 물론 에스닉 네트워크를 통한 조력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내부의 이질성과 취약성의 충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성별, 산업, 체류지위에 따른 산재 대처 경험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서 근로능력을 상실한 이주 산재 노동자는 장기 체류가 어렵고, 상당수가 귀국을 선택하거나 강제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로 국내 체류 중의 산재대처 경험에 분석을 한정하였다. 산재 이후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삶, 본국에서의 치료·재활·생계 전략, 그리고 산재 경험이 이후 생애 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재를 계기로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경험을 포함하여, 산재 대처의 시간적 범위를 국경을 넘어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산재’를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상병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개념적 선택이지만, 그 결과 업무 관련 상병이 산재보험 신청보다는 사업장 변경, 귀국, 비공식적 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대처 방식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으나, 각각의 선택이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분

석은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3) 정책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가 개인의 역량이나 우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산재 대처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 산재 조력자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현실은, 산재 보험 접근을 ‘운’의 문제로 만들고 초기 대응의 지연을 초래한다. 이에 공공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재 상담·조력 창구를 다언어로 정비하고, 검증된 조력자 및 지원 단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 대처 과정에서 제도 접근 자체가 차단되거나 극도로 제한되는 만큼 보다 특수한 보호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단속과 추방의 위험으로부터 분리된 상담·치료·요양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산재 대처가 체류 지위 악화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에스닉 네트워크의 상호부조적 특성은, 조합이나 상호부조 기금과 같은 집합적 형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 일부 이주민 공동체에서 관찰되는 회비 기반의 상호부조 방식은, 긴급 안전망에 머물러 있는 에스닉 네트워크를 보다 지속 가능한 보호 장치로 발전시킬 잠재력을 지닌다. 향후 정책은 이러한 자생적 네트워크를 배제하거나 대체하기보다, 공적 제도와 연계·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력 경로의 공공화와 ‘관계적 안전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가 개인의 역량이나 제도의 유무보다, ‘누구를 만나는가’라는 우연적 경로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거나 노동자 개인을 교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주민 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력 경로 그 자체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산재 발생부터 승인까지 이어지는 경로의 단절을 잇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운좋게 비영리 조력자를 만나는 ‘우연성’에 기댈 것이 아니라, 산재 발생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조력 경로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제도의 신설이 아닌, 이미 작동하고 있는 조력 경로의 입구를 공공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재 대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통역, 행정, 노무, 의료 인력을 공공 차원의 인적 풀로 조직화해야 한다.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선배 당사자나 동포 조력자들을 공공 시스템의 매개자로 주목하고, 이들이 상시적으로 공적 차원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사적인 조력 관계를 공공의 신뢰 경로로 전환하는 관계적 정책으로의 이행을 뜻한다.

주지하듯이, 단순히 다언어 책자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실효성이 없다.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사람’이다.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서 검증된 비영리 조력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가들의 정보를 공적 플랫폼에 상시 공개하고, 이주민 커뮤니티(페이스북)와 공공 인적 풀이 즉각 결합할 수 있는 인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탈적 성격을 띤 일부 영리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조력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 역량 강화는 이들이 한국어를 잘 배우거나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에스닉 네트워크의 조력 에너지를 공적인 제도와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국가는 흘어져 있는 조력의 자원들을 공적 경로로 묶어내는 ‘플랫폼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노지현. 2016. “남성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후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8(1): 23–52.
- 노지현· 강선경, 2016. “산업재해를 겪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경험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사회복지정책』 43(1): 135–164.
- 이철승, 2017. “결합노동시장지위와 임금불평등의 확대(2004~2015년)” 경제와 사회』 115: 103–144.
- 정연· 이나경, 2022.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
- 정이환, 2007.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경제와 사회』 73: 332–355.
- 퍼트넘, 로버트(Putnam, Robert D.). 2016. 『나 홀로 볼링』 정승현 역. 페이퍼로드.
- 포럼』 304: 51–65.
- 황지영, 한나현, 차필립, 조혜란 and 이철승. (2025). 비합법 이주노동의 증개와 신뢰: 일용직 노동시장의 중개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9(4), 1-45.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 95-120.
-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k, Karen S., Margaret Levi, and Russell Hardin(eds.). 2009. *Whom Can We Trust? How Groups, Networks, and Institutions Make Trust Possibl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eronimus, A. T. 2023. *Weathering: The Extraordinary Stress of Ordinary Life in an Unjust Society*. Little, Brown Spark.
- Burt, R. S. 2004. "Structural Holes and Good Idea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2): 349-399.
- Gould, Roger V., and Roberto M. Fernandez. 1989. "Structures of

- Mediation: A Formal Approach to Brokerage in Transaction Networks." *Sociological Methodology* 19: 89-126.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Lin, N., Ensel, W. M., Vaughn, J. C.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393-405.
- Massey, D. S., Arango, J., Hugo,G., Kouaouci A., Pellegrino, A., Taylor,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431-466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Stovel, Katherine, and Lynette Shaw. 2012. "Brokera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8(1): 139-158.